



김창목 목사

바로 회개만 하면

(호세아 14:1-9)

“...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재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1.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없었노라”(1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 고멜로 아내를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호세아에게 행실이 나쁜 여자에게 ‘장가’ 들라고 하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장가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고멜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다시 불붙고 악한 사람들의 유혹에 끌려서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서 처음에는 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마 있다가 그 사람들의 고향을 밟았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고멜은 거짓신세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 없고 마침내, 남의 종으로 팔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종이 되어서 고생하는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내 되었던 고멜, 네 아들 딸의 임마인 고멜들을 다시 찾아라. 네 재산 가지고 가서 그 동안 밟은 것 다 값으로 다 대려다가 네 아내로 사랑해 줘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을 모든 빚에서 속량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살피고 보아 주시면서 변절한 인간의 모습과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 받고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욕심이 생겨서 악한 마귀 우상을 따라 다니다 결국 잡혔습니다. 이제 스스로 범한 죄악으로 인해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마의 종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열방에 이를 죄를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행할 만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만한 죄를 얻어 뉘우치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없었노라”(1절)

대단한 죄 백성들이여, 땅 위의 모든 인생들이여,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들이 범한 죄입니다. 따라서 이제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고멜을 건지기 위하여 호세아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서 빚을 갚은 것처럼 독생자가 우리들을 위해 피를 흘려

형벌의 값을 갚았으니 이제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2.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한 자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결심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재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2절)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 믿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불의한 일들을 재하고, 올은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제물로 드렸었다’는 말은 우리의 현금도 귀하지만 의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된 자로 말미암아 궁핍을 얻음이니라”(3절)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앗수르는 큰 나라입니다. 이런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상에서 큰 세력을 가진 나라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시는 타 무역을 믿지 않고 우상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고아가 된 자로 말미암아 궁핍을 얻음이니라.” 하나님 없는 우리들은, 예수님 만난 우리들은 영적 고아입니다. 마귀의 장난감이 되고 만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세상 권세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주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면서 ‘영적 고아가 된 나를 돌아보아 주께요’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복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너희를 사랑할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라”(4절)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패역을 고친다는 말은 속사망, 금 영적 망을 고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즐거이 너희를 사랑할리니.” 지난 죄는 다 용서함받고 속사망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발화같이 피었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랄 것이라”(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서 모든 곡식과 나무를 가뭄이나, 성령님이 이슬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도 모든 사악한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근심, 걱정 물러가게 하신 다음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무려무려 키워 주십니다.

“저가 백향목같이 피었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다’를 발견하는 말씀입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랄리니.” 헛된 인생들, 즉 세상은 이기고 악마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지가 피되면 그 아름다운 감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와서 저라 지회는 곡식같이 소성한 것이며 또 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도도나무 되리라”(6,7절)

여러분, 배를 따라 내리는 이슬과 비를 맞으며 자라나는 곡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클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도 곡식같이 잘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만 바로 하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망을 변화시키기에 세상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사람 된 다음에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심판으로 옵니다. 회개만 바로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회개를 바로 하지 않고 회개만 하면, 자기의 비가 좋은 것만 믿고 자강하면, 나보다 남을 헐어 뜯는 경쟁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에 붙임이 옵니다. 회개를 바로 한 자는 마음에 평안이요 다시 얼굴에 웃음이 꽃입니다. 내 입으로 거짓말을 하니 사람들이 내게 거짓말로 나를 속입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 남을 축복하니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도 믿지 말고 세리의 앞잡이 노릇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고 온 은혜 받았으니 이제 세상에서 용서와 유혹에 빠져서 실질로 바뀐 것 하나님께 안 마치고 다른 데다 써버리고 구제

할 것도 하지 못하고 사치품 사고 못된 것 하는 것 다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데, 마음에 평안 주시고 얼굴에 웃음꽃 피게 하시고 하는 일에 열매 맺게 하시는 등 내게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죄를 숨겨 두면 사랑 못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다고 해서 낙심하면 소망이 끊어지는데 지난 죄를 회개하고 아무런 죄의 무게 없이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고 회개를 바로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따라가고 복을 순종합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행할 길이 완하게 열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고멜이 호세아를 따라가야 했던 것처럼 지고 여러 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4. 결론

대량이 있는 곳에 어둠이 없습니다. 달과 별은 빛이 없으나 태양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머리가 좋아도 빛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바로 소망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가 배운 지식이 세상에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변절한 인간은 악마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내가 잘한 것은 내가 잘나서 잘한 것이라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며 감사하고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회개하고 회개만 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세상 앗수르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 주께서는 도망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은혜를 입히고 천국까지 길이 완하게 열리고 천국 가기 전에 마음의 근심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백처럼 온갖 악한 것 다 닦았어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해도 안되고 낙심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저 믿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믿고 잘한 것 회개하면서 번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번사에 믿음으로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이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 마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두 감사합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



김성목 목사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19-26)

“... 그 중에 구브로와 귀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매 수대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놀라운 시작

기독교의 시작은 실로 놀랍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반쯤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거쳐, 소수의 선택된 이방인들과 수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끝내는 땅 끝까지 전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 세워진 첫 이방인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도 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흠어진 성도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행 8:1) 배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등으로 흠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되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11:19).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약 600여년 전, 이스라엘이 앗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을 때, 식민지세력의 권세에 의해 이 지역들로 흠여졌던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희망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율월절을 기념할 수 있었기를 고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에게 흠여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을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도

그런데 그들 중 구브로와 귀레네에서 올라온 몇 사람은 안디옥에 올라가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20절). 자기들의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이 이름없는 자들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디오가 내시, 아소도의 사람들 및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믿음을 받은 모든 도시에 그리스도인을 전한 사실을 만납니다. 그 바로 앞에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헬라 출신 스테반이 있습니다(행 6:9, 7:2-53). 또한 율야로부터 시작하여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들의 몇몇 집들

을 방문하여 일단의 이방인 무리들에게 세례를 준 베드로도 있습니다(행 10:44-48).

이름없는 전도자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할레반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증거하기도 했습니다(행 11:1-18). 이 모든 놀라운 사건들이 안디옥에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구브로와 귀레네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

살렘을 대신하는 제1의 기독교 도시로, 또한 초기 선교역사의 본부로 택하여진 것입니다.

첫 역사자 바나바

안디옥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곧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21-22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24절)였습니다. 그는 내 가지 면에서 초대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첫째로, 그는 사도 바울의 개종 사실이 진실임을 사도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9:27). 둘째로, 그는 사도들의 보증을 받아 안디옥까지 갔고 그곳에서 일어난 복음운동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22-24절). 셋째로, 그는 성

을 목양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바로 5년 전 다소로 떠났던 바울이었습니다(행 9:30). 바나바는 이미 사도들 앞에서 바울 회심의 진정성을 변호한 바 있었는데, 이제 는 바울을 자기의 동역자로 칭하기 위해 친히 다소를 방문합니다(25절). 그리고 그들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두 사람은 안디옥에 도착한 후, 교회에 일년만 머무르며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를 통해서 그곳의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행 11:26).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행하고 성경 전체의 증거를 통해 이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르침된 기쁨부름 받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안디옥에 있는 그들의 메시아가 되시기를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바야흐로 안디옥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침 없는 구원의 역사

예루살렘교회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는 말씀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이렇게 이름없는 창립자들에 의해 세워진 이름없는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현”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전한 존재의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첫 이방인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출발을 가난히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자기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준비시키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열약한 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매미같은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에 따라 새 교회가 탄생했고,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첫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이름없는 창립자들에 의해 세

워진 이름없는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열약

한 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

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

니다. 이 구원 계획에 따라 새 교회가 탄생했고, 그 성

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첫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나 영원한 생명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열약한 곳에서

사실, 안디옥은 교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붙지 않은 한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진 것뿐입니다.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세계적인 도시로서 지중해로부터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전 차경주용 유명한 안디옥은 사치와 부도덕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밤낮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였습니다. 다프네(아폴로에게 봉거 율게수로 변한 요정) 신상과 헬라인들의 연인이었던 아폴로 신이 있는 도시, 그리고 제사장들과 여사제들 사이에 비밀한 성적 음란이 저절리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시가 예루

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더불어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13:2). 마치 막으로 그늘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여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변호했습니다(15:12, 25). 이렇게 바나바는 초대 교회 역사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동역자 바울

바나바는 그야말로 안디옥으로 파송받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한 즉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을 권했습니다(23절). 바나바는 본래 구브로 출신으로 구교 교향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판에 두었던 인물이었습니다(4:37).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순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역자를 구하는 안목에 있어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있는 영혼들

세계 선교

눈물방울 모양의 땅,
스리랑카를 다녀와서

오 태 기(선교전도사)



현재 스리랑카는 15년 정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전 지역인 북부 지역은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국내외국인선교부에 출석하는 근로자들의 가정을 가정으로, 중부와 남부 중심으로 사역의 일정을 진행하였다.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전해 주고 부모와 부인, 그리고 자녀들의 육성을 축복할 때면, 편한

안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남편이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 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호프함이 가슴 벅찼다. 그러나 그들은 매사 'YES'의 답편을 습관인양 잘하기에 복음 전파의 긴장은 그로써 끝날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

현지에서 느낀 가장 큰 점은 학생들이다.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되면 학생들이 붐비기 터진 듯이 거리로 나온다. 선교라는 것이 당장 눈에 나타나듯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실. 또한 앞으로 스리랑카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바로 저 거리에 있는 저 수많은 학생들. 이러한 상관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 학생들을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다행히 사역을 마무리지킬 때, 우리 팀은 학생들과 직접 마주 대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카순'과 '한시'라는 오누이가 제일 인상에 남는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불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교회의 수 차례 단기 사역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놀라운 수준이었다. 그 실례로 천지창조의 순서와 그 내용을 정확히 외우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나누어 주었던 전도지를 모두 책상사탕 한 칸에 다스듯하게 모아 놓았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부르는 영어 복음송가를 따라 불렀다. 그

들의 모습과 문화양식만 불교인 뿐 진정한 신앙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느껴지기도 하였다. 이외의 다른 학생들도 만났지만 느껴지는 생가는 같았다. 그들에게는 자발적인 신앙이 약하다는 것이다. 즉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다. 그러나 그 기둥을 우리가 하나하나의 집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으리라.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면 이들을 통한 선교는 금방 열매가 눈에 안보여도 확실하며, 사실 저를 길이라고 생각한다.

외선부 차량봉사자가 필요!

선교위원회 산하 부서인 국내외국인선교부(이하: 외선부)에서는 차량으로 봉사해 주실 분을 필요로 합니다. 외선부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기에 주일 오전과 오후에 차량으로 협력할 분이 필요합니다. 지역은 수지와 광주, 의정부 등 경기도 주변지역입니다. 운행시간은 오전 7시와 오후 2시 10분이며, 왕복 운행 혹은 편도운행으로 협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용이나 혹은 운전자로 협력하실 수 있는 분은 선교위원회로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일꾼 양성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 만나기 위해
심야 심방

이 경 재(집사, 고동부 교사)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학생집을 연초에 주스만 보고 심방. 학생은 타교의 출석중. 이유는, 성악공부 중인데 지도하시는 선생님 출석 교회에 다닌다고 함.

생들이집을 심방하였다. 어머니는 타교의 출석하시고 두 학생은 이러한 경우 형편상 가까운 교회 출석 중. 예매 후 정성어린 감사헌금. 돌아온 주일에 교회에 헌금하였음. 가끔 전회 심방.

작년봄 IMF사태 이후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아버지는 피신 중. 학생은 겉돌고 교회 불출석. 미안해 하시는 어머니의 강한 교회 출석 권유와 많은 약속을 하였으나 계속 안나옴. 피곤하며 간식을 사들고 심방. 어쨌든 밤 11시에 수학 하고 심방하기도. 결국 학교도 옮기고 집도 이사함. 겨우 몇 번 나오다 연락 두절. 놀람에도 울째조 다른 반에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옴. 너무 반가움. 구명난 양말을 챙기며 하며 감추는 학생. 지금은 안나오지만 언젠가, 어디서든지, 어느때라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함. 고소다함.

교회가 오기 싫고 농구를 좋아해 주일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장기 실력생. 전회심방 무용함. 생일날 꽃과 케익을 들고 심방. 학생은 못나오고 우리 교회 집사님 이신 어머니와 예배. 두 주일 후 학생 출석.

고3이 된 학생.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어머니와 예배 후. 서로의 신앙 이야기 꽃을 피우다보니 눈물까지 흘림. 그러나 자신의 아들은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은 후 공부하는 믿을 좋고 착한 학생이라 1년 동안 교회 출석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는 말씀. 차후 어머니와만 통화. 고마우면서도 부담 느낀다고 함. 이유는 아들이 알면 교회 불출석 하는 것 때문에 부담감 가져 공부에 지장 줄지도 모른다는 말함.

부모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고3학생들. 고동부 집사의 및 반반공부 출석 저조하여 밤 12시에 심방하기도. 학원 및 독서실에서 귀가하는 시간이 밤 12시-새벽 2시이기 때문임. 물론 사전에 부모님의 양해를 얻은 후 심야 심방함. 그러나 한결 같은 부모님의 말씀. "오빠매는 참석해요." "대예배는 가깝 가요."

학·생·심·방·일·지



다시 한번 나를 다듬게 한 심방

남은 회(집사, 중동3부 교사)

새해 초 '부족하지만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약간의 절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나에게 맡겨 주신 학생들에 대한 기대로 방을 시작했. 그런데 '주님, 일꾼은 많지만 부족한 자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저런 계획으로 노력하겠으니 도와주시지요' 다짐했던 심방시기가 오면 마음에 부담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바쁜가? 주부인 어머니들과도 통화하기가 수월치 않다. 그리고 학부님들도 매우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부담스러우신 모양이다. 이런 '애'의 고갈 같아지고 있는데, '원' 하는 식으로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오더라도 예배 참석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노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거나 교회 틀만 빌다 돌아와 출석률이 좋지 않은 학생, 성경, 찬송가 대신 예배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오는 학생 등 심방이 꼭 필요한 경우 교사들을 안타깝게 한다. 또 우리, 예배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심방예배를 드린 후 예배 태도가 변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우리반 현우는 출석은 물론 예배시간 전에 일찍 와서 부활활동도 열심히 한다. 공과 준비, 요절도 잘 외운다. 믿음의 가정이고 모범생이니 이번 심방에서 재의할까도 생각했지만 100% 직접 심방을 강조하시는 부장님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현우네는 의외시였다. 서을 시내와 달리 지하실 연결이 바로바로 인해 2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이 먼 거리를 매주 일찍 오는 현우가 기록하기도 하고 교사로서 게을렀던 내가 부끄러웠다. 마

침 부모님은 직장에서 아직 안오시고 할머니, 형과 함께 심방예배를 드린 후 할머니께서 갖 배긴 귀걸이와 함께 정성으로 준비한 다과를 내놓으셨다. 미안해 하는 나에게 할머니께서 "교회 선생님은 주님의 일꾼 아닙니까? 돌아오는 길에 나는 부족하고 미천한 죄인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받게 하시다니,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죄송한 생각이 들었다. 내게 맡긴 양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회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심방이었

하나님의 시간성상에서
이뤄지는 일

이 상 욱(집사, 영야부 교사)

9월 중순을 넘어서 난새는 여전히 덥기만 했다. 무엇이 그리도 바쁘지 않게 맡겨 주신 아기를 지킴만 먼저 못해, 이번 대심방을 통해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로 준비하고 전화한 끝에 어렵사리 약속이 되어 아침 9시 30분부터 집을 나서 겨우 약속시간에 맞췄다. 예배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또 다음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전철로, 버스로, 때로는 택시로, 점심도 거른채

..... 정말 바빠서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

이 전에 예비하시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

말씀을 생각하며 서둘렀으나 마지막 약속한 아가의 집은 약속시간에서 많이 지나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갔

다. 예배 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아가는 행복할 수 없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으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될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임을 이야기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야부 예배는 참석치 못하나 늘 마음에 있고 생각해 보았다는 학부모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많은 날은 아니나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일 뿐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수단이 되어 그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하고 영원한 목적을 그분의 시간성상에서, 나의 생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루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사선(死線)을 넘어 주님만을 위해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한 1993년 9월 3일
오직 감사 뿐

최구 밀(영로, 중동2부장)

평범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줄곧 주님께 합당한 삶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생활해 나갔습니다. 일찍이 교회에서 받은 신약성경을 늘 들고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큰 도움을 받았지요.

이후 어느날 생인 사고였습니다. 1993년 9월 3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전력에서 품평회를 하는 날이라 오전 10시까지 도착하기 위해 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그 품평회가 오후에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날만은 오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좋았고 특별히 몸이 이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있던 회사를 출발해서 청계산을 넘어 시 외곽도로 풍사현강 직전까지 가는 도중 갑자기 머리에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고가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마추지 오전 15분까지 덤프트릭과 무뎅히, 제 승용차 앞부분이 그 트랙의 앞바퀴를 들이받고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저는 6

시간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트럭 운전사는 그 사이에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조사를 꾸며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실, 사고 당시에 대하여 아무 기억도 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아내와 상의한 결과, 생명이 살아난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가만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법적으로 대응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저는 곧 폐차처분이 되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지만, 저는 오히려 가운데 발가락이 부러진 것 외에는 아무런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자신을 믿지 마라. 너는 죽은 사람이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라!' 요 감당 직장생활도 매주 세로-부산을 오가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듯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주님의 품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신 은혜
1991년 6월 5일 아침

이 승철(영로, 기척위원)

젊은 때부터 중상이 있었는데, 1978년에 의사로부터 '천식'이라는 공식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2년부터는 아주 자주 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두어달에 한번씩 응급실 신세를 지야 했습니다. 아주 힘든 세월이었지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서 1986년에 정리하고 1988년에 있었던 고의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홍보실에서 설거지 시작했습니다.

1991년 6월 4일 저녁에도 같은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고 정맥주사를 맞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온 일어났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아내를 향해 '아빠지 나 먼저 가요' 하고 외치고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걸어 부르던 그 때 당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몰려와서 곧 일종의 것 같으니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놀랐게

도 아주 희미한 모습이지만 내가 공중 위에 떠서 나의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흰 카운을 입은 사람들이, 바 의사와 간호사들이겠지요. 그들이 내 주위에 둘러서서 호흡기를 가지고 숨을 쉬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는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4시간 정도가 흐른 후, 내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교도원의 기도소리를 듣고 깨어났는데, 마음에는 평안이 여전했습니다.

이후로, 저에게는 죽음의 두려움 같은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있는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찮게 보셨다'는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는 몸이 생지 못한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을 주신 죽음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요즘에도 숨이 차오르는 것 때문에 홍보실에서 본당까지 걸어가 는 것조차 힘들어 때가 자주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뿐입니다.

국내외국인신교부 운동회를 다녀와서
미래의 복음 사절과 함께 나는 잔치

서인 회(사서, 2교구)

추석 다음날은 토요일! 하늘은 맑고 상쾌한 아침이었다. 오전 10시에 교회를 출발, 11시 조금 넘어 기도원에 도착하였다.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여덟 나라에서 취임을 위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근로자들이 이날 기도원 본당에 모였다. 박태완 전도사님의 인도로 찬송을 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외국인 형제들이 속속들이 모이는데 놀이원으로 200명은 되는 듯했다. 유호선 권사님과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점심식사를 준비된 음식이 모자랄 것을 걱정하셨다.

미리예 붙은피, 파란피를 두루고 팀을 갈라 야구,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으로 만세의 합성을 부르며 기뻐했다.

김영수 장로님은 "이들을 복음으로 전도하면 그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되돌아 갈 때 큰 선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오후 5시, 각 나라별로 음식을 만들며 숨쉴 때 뽀얀 음식 페스티탈! 별미 식당 안에서 나라별로 팀을 짜서 음식을 만드는 데 야채는 썰고 고기는 지지고 하면서 나는 구수한 냄새! 주 원리는 닭고기와 한국사람들이 별로 먹어보지 못한 양고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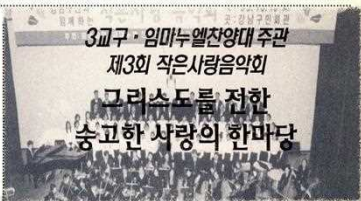
중국팀은 닭수프와 삶은 만두, 몽골팀은 양고기 접과 식초와 소금을 소스로 사용한 쉐리드, 우즈베키스탄팀은 양고기에 감자, 당근 넣어 스프를 만들고 복음말과 유우죽을, 인도네시아팀은 닭을 기름에 끓여 써앗이 들어간 가루스프가 들어가면서 다시 찜한 닭 닭요리, 스리랑카팀은 감자, 양파를 가늘게 썰고 카레가루와 함께 오래도록 끓여 볶은 후 통후추를 겨란과 함께 섞어 넣은 후 나중에 완두콩과 밥을 한 주걱씩 넣는 장시간 볶은 볶음밥, 볶음밥에 뿌려먹는 소스도 독특하다. 유우에 녹두 비슷한 것을 넣어 끓여 만든 소스는 정말 그 향기가 일품이었다. 다른 나라 맛조각들은 음식을 만들어 먹기까지 먹는데 파키스탄팀은 음식이 늦게 완성되면서 모두들 졸린

듯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음식이 완성되어 나오자 그들은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고 '라라 파키스탄! 라라 파키스탄!' 하며 합창을 했다. 잘려진 국수가 생긴 긴 썰과 섞은 닭고기 요리, 고기, 양파를 넣어 튀긴 갈색 튀김만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음식상은 더욱 푸짐해지고 그야말로 천국의 잔치상 같은 그런 잔치였다. 운동회를 하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그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신생원들의 수고, 그리고 음식으로 양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과 봉사자들.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이나 국내외국인신교부를 축복하시고 그 기를 운동회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이나 사랑을 나누어 주셨다. 비록 얼굴과 피부색 언어는 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이 잔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 방글라데시 형제들이 저녁식사를 하는 모습



공간예술인 미술보다 시간예술인 음악은 단시간에 공 사람을 움직이기는 힘이 있다. 두드러지고 끊임없이 감상할 수 있는 미술작품이 주는 감동도 좋지만 한 공간에 속한 구성원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행보를 맛보기에 음악은 안성맞춤이다.

삼삼한 계절이 오기를 여미게 하는 가을, 시월 십구일 밤에 대저동의 감남교회에서 출현교회(3교구), 임마누엘전당대가 주최하고 감남구청 신우회 후원하는 '작은 사랑음악회'가 열렸다. 시작 시간인 7시가 되기도 전에 잘 손질한 한복을 차려 입은 교구사수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청중들이 속속 입장하였다. 늦은은. 출현의 기적 외에 감남구 소속 한빛교회원들이 189명이나 초청받아 오셨다. 청결한 환경을 위해 저지분한 곳에 자신들의 몸을 던져 일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기에 '작은 사랑음악회'는 정말 제이름없는 하였다. 이밤에도 대신자 17명, 외부인 114명 등 670여명이 흥을 가득 매겼다.

'작은 사랑음악회'는 독창과 중창, 합창, 기악연주로 구성되었다.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독창, 합창, 기악연주는 각각 독특한 매력을 발휘하며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음악회에도 오면 하나님이 만드신 소리의 신비함에 늘 감동해진다.

오늘의 '작은 사랑음악회'는 표면적으로 보면 어느 음악회나 다름없는 단순한 음악회였다. 그러나 음악회의 이면에는 그것을 받쳐 주는 강한 힘이 있었다. 그 힘은 음악회라는 방식을 빌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송고한 사랑이었다. 마지막에 이준경 목사님은 확신에 가득찬 권면의 말씀을 통해 마치 천국을 우리 눈 앞에 펼쳐 놓은 듯 생생하게 묘사하시고 청중들을 시공을 초월하여 천국의 아름다운 시냇가를 걸으며 찬송하는 듯한 기쁨을 당겨서 맛보았다. 소망과 열매의 열매가 이 가을밤 음악회장을 채웠다. (원연희 기자)

내가 만난 예수님 65개월만에 다시 찾은 주님

박 성 희(청년1부)

고등부때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학교에서, 주일은 교회에서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 다. 기독교 가정이라는 배경이 제 신생활을 겨우 지탱해 주었던 것 같습니 다.

그렇게 멀어졌을 때 심하게 혼돈됐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라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어디로든지 파해보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교회로 나오게끔 하겠다는 친구 앞에서 예배와 예수님에 대해서 못할 소리도 마구 해댔고 악속을 정했다가는 핑계 대고 안 지 키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던 제가 '예수사랑 큰잔치'라는 행사를 듣고 교회 가볼까 라며 별생각도 없이 처음으로 악속을 먼저 켜고 예배실로 올라가서 앉았습니 다. 65개월만에 교회에 가는 것이었고 제가 모태에서가 아니라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시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 어 기 있었어요" 고백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어서 349장 찬송을 하느 데 일어나지 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꼭 붙잡고 계셨습니까? 왜 다시 주 안에 거하게 하셨 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장파할 정도로 나를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 구하고 무엇보다도 비로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의 한결음이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이후로 쉽지않은 않았고 지루해하 하는 대 가가 잠이 되어 너무나 무거웠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쉽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 지 않기로, 그분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 서 치라야 했던 대가가 더 컸던 것을 얼마 전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그릴 게 힘들어 하니?" 예수님 처음 만난 그 날처럼 말씀해 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을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의 것이 더욱 커지도록

이 해 속(전사, 14교구)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딤후 2:1)

주님 정말로 어떠한 성우였습니까. 날 때부터 순결과 친절과 영특한 아이였습 니다. 성우가 모두에게 칭찬을 받으며 잘 자라는 모습은 우리 부부에게 언제 나 행복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 아이 곁에가면 저절로 즐거워지고 웃음이 배 어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다쳤습니다. 전혀 위험지 역이라고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영동한 사고였습니다. 핸드코를 신고 에스컬 레이터에 발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 습을 내 눈으로 지켜보며 머리 속엔 온갖 가지가지 필름들이 회회 지나갔습니 다. 그 순간, 거짓말 같은 그 사고가 주 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벌이라는 생각이 마구 들었습니다. 언제나 세 아들만큼의 위해 일종의 시간도 쪼개어 살던 나. 예 배로만 끝나지 않고 한나절의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구역예배를 회피하네 나. 세 아이들에게 시간도, 물질도, 나의 생활의 전부를 초조하게 맞추면서 정 각 해야 하는 세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마음 속으로 황 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 나의 시간이 너무 적고 나의 믿음의 분량이 도주지 않게 하소서. 나 님 것에 대한 게으름. 그런 모든 것에 대

한 무엇이었어 아냐? 사고를 당한 성우 를 앞에 놓고 술한 생각들이 떠올랐습 니다.

그했기에 내 주님께 매어달리면서 도 주님께는 내 기도를 들어 주지 않았을 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목 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중도2부, 유년 부, 아니 온 중현의 성도들이 중보기도 를 통해 우리 성우를 위해 열심히 기도 해 주었습니다. 언제나 나의 가정을 위 한 기도가 전부였던 내게 성우의 사고 를 통한 온 성도님들의 기도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깨달음이었습니 다. 나의 것이 아닌 남을 위한 기도로써 얻어지는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성우가 받을 다쳐서 원래의 온전한 모습은 아 니지만 이로 인해 정말 수없이 많은 기 도를 받았습니 다.

지금도 40일 동안의 병상생활로 신령 이 날카로워졌지만 주님께서 지켜 주시 리라 믿습니 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세 백제대를 땀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 는 남편과 세 아이와 우리를 위해 기도 해 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 새벽제단을 땀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한 믿을 가운대서도 저희 가정을 이렇게 지켜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력할게요. 힘쓸게요. 주님의 것이 더욱 커지도록. 더욱 많이 커지도록 주님, 도와 주세요.

QT일기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하며

진 화 원(교구)

본문 말씀 막 6:30-44

적용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무엇 을 배울 수 있을까?

- 주제: 풍성한 삶의 체험 현장
- 요절: 34절 "... 목자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한 여가사 이에 여러 가지 로 가르치시라"
-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 → 34절 불쌍히 여가사 ...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주심
-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명, 책임이다.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이다.
- 깨달음: 죄: 염려(날이 저물어가니 ...), 계산적 사고("무리를 보내어 ... 사막에, 이백 데나리온이 모자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무지함, 이웃의 빈곤에 대해 냉랭함.

내게 주시는 교훈:

1. 이웃의 빈곤에 대한 나의 사명?
어떤 일(일을 돕거나 선교사를 돕는)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목을 추구하기에 스스로 낙망하여 포기할 때가 많은데 나의 최선, 나의 필요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
2. 나의 최선, 나의 필요는?
a. 준비된 것(도식작을 준비한 소년)
b.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필요한 것이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다.

간구

주님! 주께서 하시는 일에 나를 위해 준비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의 필요로 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체험케 하소서.
* QT는 'Quiet Time' 의 약자로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학생일기

하나님은 내 삶을 보시고 뭐라 하실까

1999년 7월 1일 목요일 날씨: 더웠다.

나태하게 보낸 시간들. 요즘은 너무너무 속상하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구 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실까? 하지만 하루하루 변하지 않는 삶, 아브라함도 공부도 해야 하고 또 그밖에도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 하나님은 어딘가 에 문을 열어 놓으셨을 거야. 자꾸 힘이 빠지지만 매일 나에게, 식구들에게 부 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내자. 정말 이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 한 일인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나아질거야.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으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접어들거야.

1999년 8월 24일 화요일 날씨: 아직도 덥다.

겨울에서 여름까지요. 이제 가을이 온다구. 난 그 동안 뭘 했을까? 그리고 이제 내는 99년 동안 난 어떤 생활을 할까? 공부하다. 건강하고 나면 정신이 없 어지지겠지? 그냥 수업 듣고 집에 오고 또 책따기 들듯 생활하겠지? 그 동안 공 부를 많이 해서 편한 마음으로 학업을 가려고 했었는데, 어휴 이제는 학교에 가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각중 공부도 해야 되는데. 아마 힘을 주시겠지, 아니 지혜인가? 내일부터 열심히 하고 자야겠다.

1999년 9월 3일 금요일 날씨: 여름 같다.

정신없는 한 주를 살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좋은 주였다. 그 동안 기분이 별 로 좋지 않았는데 내 생각지도 않게 영화도 보고 음악회도 가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얘기를 듣고 계시고 들어주시니부다. 예구, 꼭 기분이 좋 을 때만 ... 이런 내 맘도 아니겠지.
공부할 것이 너무 많다. 그 동안 그렇게 안 했냐? 단어도 외우고 회화 테이 프도 들어야지. 지금 기분은 정말 다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이런 주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뿐이다.

지체들 소식

영아부
오늘 본당 앞에서 만나요



10월 17일 영아부에서는 한해동안 하나님께 찬양한 곡을 모두 모아 서 반별로 부르기 대회를 열었다. 선생님과 엄마, 아빠, 아기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애쓰며 도와 주며 쟁쟁해 주는 것이 어찌나 이쁜지!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아씨의 웃는 얼굴과 몸동작에서 율동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하는 모습이 감사했다. 오일은 영아부 전 교사들이 2부(9시), 3부(11시), 4부(1시) 예배 후 새 아기(0-2세)들을 만나기 위하여 본당 개당, 2층 로비에서 전도하기로 하였다. 10월 31일 있을 초청잔치에 전하보다 귀한 아기들을 첫걸음부터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초대하고자 오는 행사를 준비했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콩나물부 자라듯 우리 자녀들도 자라요

유아부는 10월 24일 '새친구 초청잔치'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본당 앞과 탁아부에서 전도하고 전하로도 새친구들을 초청했었습니다. 유아부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자는 목표 아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훈련하여 선태이 크리스천들이 어린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콩나물 시루는 구멍이 크게 뚫려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콩들은 자라고 뿌리내려 콩나물로 새롭게 변화하여 우리 미각을 즐겁게 하지요. 우리 어린이들도 말씀을 그날 듣고 컸듯으로 홀리는 것 같지만 말씀들이 어린이의 심령에 하나하나 새겨짐을 아이를 키우면서 느낍니다. 유아부는 두 돌이 지난 어린이들을 오전 9시, 11시 2회 기도가 있습니다. (임미옥 통신원)

유저부
정직과 기쁨 배워가는 어린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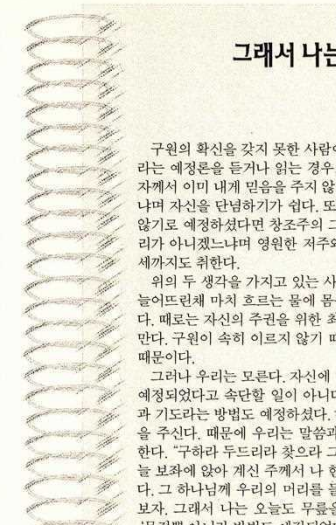
오늘도 유저부 어린이들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 기쁘게 하려고 애썼어요. 지난 주일의 열매반에 이어 이번 주일에는 꽃반의 찬송가 부르기 대회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반박반과 왕관반 쓰고 알록달록 곱고도 쓰고 예쁜 모습, 준비하는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매우 신개념을 따라 배워가는 가운데 새로운 '가' 것발 하지 않기를 약속하고 다짐한 우리 친구들, 다음 11월에는 성경이야기 대회도 준비할거예요. 말씀 안에서 정직을 되새기며 찬양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유저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유리 통신원)

유년부
새 친구 초청잔치를 앞두고

오래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온 '새친구 초청잔치'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학교와 교도와 심방, 또한 장기결석생에게 연속으로 편지를 보내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어린이 전도록 공판'과 '전도반장'을 뽑아 전도하시는 선생님들을 돕게 하여 새 친구 전도에 활기를 더하게 했다. 다음 주일 특별행사는 어린이가 좋아하는 인형극과 새친구 환영 순서를 마련하여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꼭 다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즐겁게 환영해 예정입니다. (윤숙희 통신원)

중등1부
학부모 초청예배

지난 주일에는 중등1부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중등1부와 친구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셨고 전하로 모습으로 학부모 초청예배 순서에 임해 주셨다. 이날 순서는 부장 강로이신 김단은 장로님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 기도 응답이신 연영일 목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각 반별로 주어진 '담임교사와의 대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우리 교사들이 중등1부 친구들의 학과, 가정, 교회 생활에 대해 다 잘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학부모님들에게 청소년기의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나를 바꾼 한마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무릎을 꿇는다

정 성 수(성령2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한 영원 전부터의 선택이라는 예정론을 듣거나 읽는 경우, 믿음 없는 자기 내면의 상태만을 바라보고서, 절대자께서 이미 내게 믿음을 주지 않았고 결정하셨다면 나의 노력의 무슨 소용이 있었는지를 자신을 단념하기가 어렵다. 또는 토기장이인 창조주께서 절그릇인 나를 구원하지 않으려 예정하셨다면 창조주의 그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피조물의 바른 도리가 아닐까? 영원한 자수와 멸망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까지도 취한다.

위의 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두 손을 늘어뜨린 채 마치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고 그 때 떠날거라는 것 같은 인생을 살기 쉽다. 때로는 자신의 주권을 위한 최대한의 몸부림을 칠 수도 있다. 그러나 곧 실패하고 만다.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크게는 위의 생각들이 자신을 막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을, 자신이 버림받기로 예정되었다고 속단할 일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을 예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는 방법도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는 중에 믿음을 주신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는 방법을 최선으로 다해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열고 열리고 찾으리라"는 약속을 의지하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께서 나 한 사람에 대한 영원하신 계획을 품고 나를 바라보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들자. 눈물이 메마른 가슴과 눈으로라도 그분을 바라보라.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무릎을 꿇는다. (로레인 비트너의 '칼빈주의 예정론' 중 '목적뿐 아니라 방법도 예정되었다'를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중등1부를 위해 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일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범진 통신원)

사랑부
통합교육 위해 마련한 찬양대회와 교사특강

사랑부에서는 2부 순서로 과별 찬양대회가 있었다. 우열을 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각 과에 예정된 소년부 학생들이 자신이 소속되어진 그 자리에서 사랑부 친구들과 융화되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학생들을 보낸 후 감동적 목사님의 '교회학교에서의 장래와 통합교육'이란 주제로 교사 강사가 있었다. 통합교육이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 활동 중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써 현재 사랑부와 소년부에서 매주일 사랑부 분반공부 시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통합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장애학생들에게 통합교육에 의한 부정적 영향보다는 오히려 또래의 학생들보다 발달적 성취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교회에서 먼저 장애학생들을 하나님에 이만드신 동등한 인격체임을 인식하고 이들을 지역사회 회로부터 분리시키지말라는 이들과 하사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강의의 결론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민혜정 통신원)

에바다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10월 한달 동안 에바다부 막인기 목사님께서 바른 예배에 대해 설교하고 계신다. 에바다부 학생들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믿음과 감사로 하는 예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바른 예배의 모습이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연 통신원)

1교구
이러지는 연합 전도 사업

10월 20일 우중에 군도전도부의 협력사업으로 몇몇 부대의 장병들을 심방하였다. 부대에서 전도반과 세례 받은 자들을 심방하여 전후에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7팀으로 나뉘어 양주, 동두천, 연천, 광주, 서초, 대곡 등 심방 대상자 1명을 여성 2명씩 맡아 전심으로 준비하였다. 심방을 가서 목사

님과 군종요원들, 심방대상자들과 식사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었다. 그들의 집 전화번호도 적어(역삼동, 방학동, 전라도 등) 부모님과 통화하였는데 부모님도 면회를 뜻했는데 교회에서 심방해 주어 너무 고맙다는 말씀도 들었다. 한 영혼을 잃지 않도록 기도와 사랑의 후원이 계속 이어져야겠다. (임통계 통신원)

7교구

'하나되어 전도의 열매 맺자' 다짐한 영성훈련

후반기 영성훈련이 총원기도원에서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었다. '우리 모두 하나되어 전도의 열매 맺자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나에게는 주소사' 이러한 표어와 찬양들이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다. 이어서 김병태 목사님의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엡 5:14)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죽음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말씀이었다. 점심식사와 주 조별로 주제토의가 있었는데 총동원 전도운동에 모든 식구가 하나되어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대인자를 정하는 시간이 있었다. 땅 끝까지 전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리를 듣고 깨어 있는 자들은 방황치 말고 지체하지 말고 주 예수 안에 오라고 하였다. 찬송가 318장이 끊임없이 불리지만 서 들어오는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다. (7교구 통신원)

9교구

기도하며 총력 전도주일 막바지 준비

19일 화요일에 베다니홀에서 교구 영성훈련을 했다. 특별히 총력전도 주일(31일)을 앞두고 가진 영성훈련이라 교구 정형성 목사님께서 '능력을 믿을다' (행 1:7-8)라는 제목으로 성령충만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마음을 간하여 전하로 기도해 왔었던 것처럼 모든 교구식구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충만 받기를 간구하였다. 총력 전도주일을 위해 그동안 급속히 밀려나 기도하고 해신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러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며 교구 모든 식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정옥련 통신원)

구분	시 간	장 소
주요 대회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사태 발생 시 동상(동상대)에)	본 당
	IV 오후 1:00(사태 발생 시 동상(동상대)에)	본 당
	V 오후 3:00 (출발이 늦어지는 경우)	본 당
English Series	9:00 ~ 24:00	북극점 가나(Cana Point)
완 료 대 회	오후 5:00	본 당
수 해 대 회	12:00 ~ 11:00 오후 7:00	본 당
금 오 회	오후 7:00	본 당